

六味地黃湯證 辨證設問紙의 信賴度 妥當度 研究

조상원 · 박영재 · 박영배 · 김민용* · 이상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인체정보의학과학교실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그리스도대학교 경영정보학부

Abstract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Yukmijiwhang-tang Patternization Questionnaire

Sang-Won Cho, Young-Jae Park, Young-Bae Park, Min-yong Kim*, Sang-Chul Lee**

Dept. of Human Informatics of Oriental Medicine, Interdisciplinary Programs, Kyung Hee University

**Dept. of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young Hee University*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Korea Christian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

We previously developed questionnaire of Yukmijiwhang-tang symptom on the Delphi method. But developed a questionnaire was not verified in the clinical. So, to ensure objectivity, quantification and validity, verification is needed for questionnaire items before applying a clinical. On this study, we looked at whether questionnaire items had been validity in the clinical.

Methods :

The previously developed questionnaire of Yukmijiwhang-tang symptom was applied to 200 patients who visited 12 local oriental medicine clinics. Item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

The developed questionnaire showed remarkable reliability.(Cronbach's $\alpha=0.869$)

In factor analysis, items were clustered to 6 factor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eveloped questionnaire is reliable and valid for Yukmijiwhang-tang symptom. It can be used to evaluate Yukmijiwhang-tang symptom objectively.

Key Words :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Yukmijiwhang-tang Questionnaire, SPSS.

I. 서론

病因論이란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인 病因을 찾아 치료하는 方法論이다. 病因은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나눌 수 있다. 內因은 食積傷, 勞倦傷, 七情傷, 房勞傷이 있고 外因으로는 傷寒外感, 飲食傷이 있으며, 不內外因은 打撲損傷, 捻挫 등의 외상이 해당된다.¹⁾ 진료를 함에 있어 한의사는 四診을 이용하여 病因을 찾아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된다. 질병이 어떠한 病因에 의해서 발생하였는지를 症狀이나 徵候를 통해 밝혀내어 치료에 임하는 것이 病因論의 핵심인 것이다.²⁾ 그러나 四診을 함에 있어 한의사마다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辨證의 과정을 客觀化, 標準化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設文紙를 이용하여 辨證시에 참고한다면 診斷의 정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設文紙를 임상에 활용하려는 연구들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의학계 내에서 設文紙를 이용한 研究로는 고³⁾의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 (I), 김⁴⁾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김⁵⁾⁶⁾의 寒熱辨證設文紙, 양⁷⁾의 瘀血辨證設文紙, 박⁸⁾의 痰飲辨證設文紙, 배⁹⁾의 熱辨證設文紙, 윤¹⁰⁾의 補中益氣湯證 변증설문지, 임¹¹⁾의 平胃散證 변증설문지 등이 있다. 기존의 설문지는 각각 體質, 寒熱, 痰飲, 瘀血, 勞倦, 食積 등을 구별해내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病因 중 內因의 한가지인 房勞傷에 해당하는 설문의 선행연구로 조¹²⁾는 “六味地黃湯證의 病因論적 分析을 위한 設問問項開發”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조¹²⁾의 설문문항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Delphi 기법으로 유의한 문항을 추출하였을 뿐, 각 문항의 妥當도와 信賴도는 확보되어 있지 못하므로 임상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설문문항을 임상에서 활용하기 전에 각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에 대한 妥當도와 信賴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로 韓醫院에 내원한 2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취합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먼저 본 연구를 위해 12개 韓醫院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¹²⁾의 선행연구로 개발된 設問紙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설문이 완료된 설문내용에 대해 信賴度分析을 통해 信賴도를 구하였고,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모두 6가지의 요인을 抽出하였다.

1. 조사대상 및 설문작성

전국의 病因學會會員 한의사 12명(평균 임상경력 14.7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작성된 설문지는 우편을 통해 반송 받았다. 설문응답자는 총 200명으로 남자는 45명(22.5%) 여자는 155명(77.5%)이었다. 연령분포는 10~71세로 10세 이하는 1명(0.5%), 11~20세는 6명(3.0%), 21세~30세는 34명(17.0%), 31세~40세는 57명(28.5%), 41세~50세는 38명(19.0%), 51세~60세는 26명(13.0%), 61세~70세는 32명(16.0%), 71세 이상은 5명(2.5%)이었다(Table 1).

Table 1. 연령분포

n(%)

	남자(n=45)	여자(n=155)
~ 10세	0(0)	1(0.65)
11세~20세	2(4.44)	5(3.23)
21세~30세	8(17.78)	26(16.77)
31세~40세	13(28.89)	44(28.39)
41세~50세	9(20.00)	29(18.71)
51세~60세	6(13.33)	20(12.90)
61세~70세	4(8.89)	28(18.06)
71세~	3(6.67)	2(1.29))

2. 설문문항

조12)의 선행연구인 “六味地黄湯證의 病因論적 分析을 위한 設問問項開發”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5종의 문헌고찰^{1,14-17)}과 임상한의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설문조사의 결과로 개발되었으며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2).

3. 분석방법

설문문항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우선 신뢰도분석을 시행하고 전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 앞서 KMO와 Bartlett의 검정통계값을 구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은 모두 SPSS 12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신뢰도(Reliability)란 측정도구(설문문항들)가 얼

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¹³⁾

이는 이 설문문항을 여러 번 반복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측정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문항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반복신뢰도를 구하고 이의 평균치를 산출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값이 0.6 이상인 경우에 유의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 본 설문문항의 전체 신뢰도 결과는 0.869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항목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Table 3).

2.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인분석은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여러 문항을 동일한 속성으로 묶어 문항수를 축소하여 설문지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¹³⁾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Kasiser-Meyer-Olkin의 표준 적절성 측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산출한 결과 0.868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s spher-

Table 2. 設問問項

No	문항	1	2	3	4	5	6	7
1	소변을 자주 본다.							
2	소변색이 진하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릴 때가 있다.							
4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5	밤에 수면 중 소변보기 위해 깬 적이 있다.							
6	대변이 굳은 편이다.							
7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8	허리가 아프다(안 아픈 경우 9번으로 이동)							
	8-1 은은히 아프다.							
	8-2 거동하면 통증이 덜해진다.							
9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빠진다.							
10	피부가 거칠다.							
11	밤에 피부가 가렵다.							
12	밤에 열이 난다.							
13	오후에 열이 난다.							
14	오후에 기침이 심해진다.							
15	오후에 얼굴이 달아오른다.							
16	입이 마른다.							
17	밤에 발바닥에 열이 난다.							
18	찬 것을 좋아한다.							
19	밤에 기침이 심해진다.							
20	기침이 오래간다.							
21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22	뺨속이 화끈거린다.							
23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24	기상 시 피로하다.							
25	수면 중 땀이 난다.							
26	다리나 무릎이 시큰거린다.							
27	다리나 무릎에 힘이 없다.							
28	발 뒷꿈치가 아프다.							
29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							
30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							

Table 3. 전체 설문문항의 신뢰도 검정 결과

No	문항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문항1	소변을 자주 본다.	0.870
문항2	소변색이 진하다.	0.861
문항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릴 때가 있다.	0.862
문항4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0.862
문항5	밤에 수면 중 소변보기 위해 깬 적이 있다.	0.872
문항6	대변이 굳은 편이다.	0.859
문항7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0.864
문항8-1	허리가 은은히 아프다.	0.885
문항8-2	허리가 아픈 것이 거동하면 통증이 덜해진다.	0.887
문항9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빠진다.	0.866
문항10	피부가 거칠다.	0.858
문항11	밤에 피부가 가렵다.	0.861
문항12	밤에 열이 난다.	0.859
문항13	오후에 열이 난다.	0.859
문항14	오후에 기침이 심해진다.	0.865
문항15	오후에 얼굴이 달아오른다.	0.870
문항16	입이 마른다.	0.864
문항17	밤에 발바닥에 열이 난다.	0.860
문항18	찬 것을 좋아한다.	0.871
문항19	밤에 기침이 심해진다.	0.870
문항20	기침이 오래간다.	0.870
문항21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0.865
문항22	뺨속이 화끈거린다.	0.861
문항23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0.872
문항24	기상 시 피로하다.	0.864
문항25	수면 중 땀이 난다.	0.861
문항26	다리나 무릎이 시큰거린다.	0.863
문항27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다.	0.859
문항28	발 뒷꿈치가 아프다.	0.859
문항29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	0.859
문항30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	0.861

Table 4. KMO와 Bart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86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6729.636
	<i>df</i>	465
	<i>sig.</i>	.000

Table 5.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제 1요인	제 2요인	제 3요인	제 4요인	제 5요인	제 6요인	제 7요인
a28	0.888						
a17	0.880						
a27	0.878						
a12	0.876						
a29	0.876						
a22	0.777						
a11	0.776						
a25	0.772						
a30	0.658						
a24		0.824					
a26		0.822					
a16		0.801					
a21		0.673					
a9		0.623					
a7		0.610					
a14			0.819				
a10			0.751				
a6			0.743				
a13			0.734				
a19				0.877			
a20				0.827			
a8-2					0.924		
a8-1					0.903		
a4						0.812	
a3						0.754	
a1							0.908
a2							0.649

icity)를 산출한 결과 $x^2=6729.636$ ($df=465$, $sig=.000$)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 결과는 설문문항이 요인분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준다.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먼저 완료된 설문문항을 가지고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를 수행하였으며 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1차적인 주성분분석결과 9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는데, 요인분석의 목적은 데이터의 축소, 즉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데 있으므로 나타난 모든 요인을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노형진, 2003)¹⁸⁾. 제 1요인은 9문항, 제 2요인은 6문항, 제 3요인은 4문항, 제 4요인은 2문항, 제 5요인은 2문항이, 제 6요인은

Table 6. 각 요인별 설문문항

요인	문항
제 1요인 陰虛火旺요인	발 뒷꿈치가 아프다.
	밤에 발바닥에 열이 난다.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다.
	밤에 열이 난다.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
	뺨속이 화끈거린다.
	밤에 피부가 가렵다.
	수면 중 땀이 난다.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
제 2요인 肝腎陰虛요인	기상 시 피로하다.
	다리나 무릎이 시큰거린다.
	입이 마른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제 3요인 眞陰不足요인	오후에 기침이 심해진다.
	피부가 거칠다.
	대변이 굳은 편이다.
	오후에 열이 난다.
제 4요인 陰虛咳嗽요인	밤에 기침이 심해진다.
	기침이 오래간다.
제 5요인 腎虛腰痛요인	허리가 은은히 아프다.
	요통이 거동하면 통증이 덜해진다.
제 6요인 腎氣不固요인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릴 때가 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제 7요인 腎·膀胱의 陰虛요인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색이 진하다.

Table 7. 각 요인별 신뢰도 검정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4	요인 5	요인 6	요인 7
Cronbach's α	0.959	0.833	0.826	0.841	0.882	0.767	0.499

2문항, 제 7요인은 2문항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1개의 문항으로 요인이 분석되었다. 1개의 문항을 가지는 요인을 살펴보면 제 8요인에 “찬 것을 좋아한다.”와 제 9요인에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로 六味地黃湯證의 設文紙에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眞陰不足 혹은 房勞傷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부족하다 판단되어 제 1요인부터 제 7요인까지로 요인을 한정하였다(Table 6).

제 1요인은 총 9문항으로 “발 뒷꿈치가 아프다.”, “밤에 발바닥에 열이 난다.”,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다.”, “밤에 열이 난다.”,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 “뺨속이 화끈거린다.”, “밤에 피부가 가렵다.”, “수면 중 땀이 난다.”,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크게 보면 痛症, 無力感, 發熱의 현상으로 陰虛火旺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2요인은 총 6문항으로 “기상 시 피로하다.”, “다리나 무릎이 시큰거린다.”, “입이 마른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肝腎陰虛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3요인은 4문항으로 “오후에 기침이 심해진다.”, “피부가 거칠다.”, “대변이 굳은 편이다.”, “오후에 열이 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眞陰不足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4요인은 2문항으로 “밤에 기침이 심해진다.”, “기침이 오래간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陰虛咳嗽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5요인은 2문항으로 “허리가 은은히 아프다.”,

“요통이 거동하면 통증이 덜해진다.”로 腰痛에 대한 문항으로 묶여져 있으며 이는 腎虛腰痛요인으로 命名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腰痛환자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 6요인은 2문항으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릴 때가 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腎氣不固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7요인은 2문항으로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 색이 진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腎, 膀胱의 陰虛症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六味地黃湯證의 設問問項이 주로 陰虛證, 虛熱證 및 泌尿生殖器系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의 결과로 선정된 문항들이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내적합치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Table 4)와 같다. 문항 제거 시 상승되는 값이 미미하여 문항을 삭제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없었다.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그런데 요인 7의 Cronbach's α 값은 0.499로 내적신뢰도가 0.6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분석 결과로는 묶이는 요인이지만 내적신뢰도가 낮으므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IV.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한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病因을 찾아내고 病因 중 內因에 해당하는 房勞傷을 判別할 수 있는 타당한 설문문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六味地黃湯은 眞陰不足으로 오는 광범위한 질환에 사용이 되며 房勞傷의 대표처방으로 그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¹⁾ 그리하여 조¹²⁾는 선행연구로 “六味地黃湯證의 病因論적 分析을 위한 設問問項開發”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조¹²⁾의 설문문항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Delphi 기법으로 유의한 문항을 추출하였을 뿐 설문지 자체의 妥當도와 信賴도는 확보되어 있지 못하므로 임상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문항수가 32개나 되어 너무 번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설문문항을 임상에서 활용하기 전에 각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妥當도와 信賴도를 연구하여 設問文紙가 타당한 설문지임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妥當도와 信賴도를 구하기 위하여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한의사 12명에게 각 20명씩 총 240명분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원장, 간호사 혹은 환자 본인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00부였고 그 결과로 설문문항의 妥當도와 信賴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설문지 전체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Chronbach's α 값을 구하였으며 그 값은 0.86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뢰도가 부여되었으므로 이어서 각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妥當도를 구하였다. 우선 설문문항이 요인분석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값은 0.868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어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두 9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제 8요인과 제 9요인은 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 1요인으로부터 제 7요인까지 7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문항 수는 총 27개로 31문항에서 4문항이 축소되었다. 제 1요인은 총 9문항으로 “발 뒷꿈치가 아프다.”, “밤에 발바닥에 열이 난다.”,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다.”, “밤에 열이 난다.”,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 “뺨속이 화끈거린다.”, “밤에 피부가 가렵다.”, “수면 중 땀이 난다.”,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크게 보면 痛症, 無力感, 發熱의 현상으로 體內 陰液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陰虛火旺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2요인은 총 6문항으로 “기상 시 피로하다.”, “다리나 무릎이 시큰거린다.”, “입이 마른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肝腎陰虛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3요인은 4문항으로 “오후에 기침이 심해진다.”, “피부가 거칠다.”, “대변이 굳은 편이다.”, “오후에 열이 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津液의 부족으로 오는 현상임으로 眞陰不足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4요인은 2문항으로 “밤에 기침이 심해진다.”, “기침이 오래간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陰虛咳嗽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5요인은 2문항으로 “허리가 은은히 아프다.”, “요통이 거동하면 통증이 덜해진다.”로 腰痛에 대한 문항으로 묶여져 있으며 이는 腎虛腰痛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腰痛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 6요인은 2문항으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릴 때가 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膀胱의 機能失調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腎氣不固요인으로 命名하였다. 제 7요인은 요인분

석에서는 의미있게 나왔으나 이후 내적신뢰도에서 0.499로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로부터 이번 연구에서는 六味地黃湯證의 設問問項이 주로 陰虛證, 虛熱證 및 泌尿生殖器系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32개의 문항은 총 6개의 요인, 25개의 문항으로 축소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본 설문 문항을 대상으로 한의사에 의한 六味地黃湯證 여부와 설문문항 점수 간 相關性을 조사함으로써 추가적인 타당도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辨證이란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症狀, 體徵에 대하여 四診의 소견들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病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²⁾¹⁹⁾ 辨證의 종류에는 八綱辨證, 氣血辨證, 臟腑辨證, 經絡辨證, 六經辨證, 衛氣營血辨證, 三焦辨證, 病因辨證 등이 있다.²⁾²⁰⁾ 病因論이란 病因을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구분하는데 內因은 食積傷, 勞倦傷, 七情傷, 房勞傷이 있고 外因으로는 傷寒外感, 飲食傷이 있으며, 不內外因은 打撲損傷, 捻挫 등의 외상이 해당된다.¹⁾ 이리하여 症治가 아닌 病因을 치료함으로 병의 根本을 치료하려는 것이 病因論의 핵심이라 하겠다. 그러나 病因을 판단하는 것은 오랜 숙련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숙련된 임상한의사라 할지라도 辨證의 과정을 객관화, 표준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²⁾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계에서는 객관적인 辨證을 위한 설문화 작업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體質, 寒熱, 痰飲, 瘀血, 勞倦, 食積 등을 구별하려는 설문지가 연구되었으며 病因 중 內因의

한가지인 房勞傷에 해당하는 설문의 선행연구로 조¹²⁾는 “六味地黃湯證의 病因論적 分析을 위한 設問問項 開發”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설문지는 임상한의사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Delphi 기법으로 유의한 문항을 추출하였을 뿐 설문문항 자체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六味地黃湯證의 설문문항의 妥當도와 信賴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전체문항의 信賴도를 조사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869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0.868로 요인분석의 요건을 확인하고,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31개의 문항이 27개의 문항, 7개의 요인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나 각 요인의 信賴도를 조사한 결과 제 7요인은 Cronbach's α 계수가 0.499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25개의 문항과 6개의 요인이 구해지게 되었다. 본 연구로 설문지의 妥當도와 信賴도가 확보되었다. 향후 본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한의사에 의한 六味地黃湯證 여부와 설문문항 점수 간 相關性을 조사함으로써 추가적인 妥當도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김구영. 병인론. 서울, 선, 2001, 11-23.
2. 임준성, 박영배, 박영재, 이상철, 오환섭. 병인론적 분석에 의한 평위산변증설문지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7;11(2):59-67.
3.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 방법론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87;8(1):146-160.
4.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5(1):61-80.

5. 김숙경,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4;7(1):64-75.
6. 김숙경, 남동현,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I).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2;6(2):141-156.
7. 양동훈,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어혈변증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10(1):141-152.
8. 박재성, 김동훈, 김민용, 이상철, 박영재. 담음변증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10(1):64-77.
9. 배노수, 양동훈,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오환섭. 열변증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10(1):98-108.
10. 윤태득, 박영재, 이상철, 박영배, 오환섭. 보중익기탕증의 병인론적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II).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7;11(2):45-58.
11. 임준성, 박영배, 이상철, 오환섭. 평위산증의 병인론적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7;11(1):72-81.
12. 조상원, 박영재, 김민용, 오환섭, 박영배. 육미지황탕증의 병인론적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9;1(2):12-2.
13. 한상숙, 이상철, 구자철. SPSS 보건의료통계분석. 포널스. 2008.
14. 이천. 편주의학입문. 서울, 대성출판사, 1982.
15.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98.
16. 장개빈. 경약전서. 서울, 대성출판사, 1993.
17. 박찬국. 병인병기학. 서울, 전통의학연구소, 1992, 164-169
18. 박한숙, 설양환. 초등학교 중학년용 학습기술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009, Vol.22, No.2. pp.163-184
19.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정보사, 1988.
20. 홍원식. 한의학대사전. 서울, 한의학교전연구소, 1989, 107.